

# 드라마 <연인>(MBC, 2023)에 보이는 17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

The Literati Society of the 17th century's Joseon in <My Dearest>

백승호\*

**국문요약** 이 논문은 드라마 <연인>의 등장인물 연준을 중심으로 그 인물 형상화가 조선후기, 특히 17세기 지식인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상함을 검토하였다. <연인>은 용골대나 각화 같은 청나라 인물을 악역으로만 그린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그들과 조선 인물과의 관계도 다면적이었다. 그러나 서사 진행에 있어서 장현과 길채의 결혼에 집중하기 위해 당대 실상과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 글은 서사 진행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된 연준과 능군리 유생의 모습에 보이는 17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모습을 부연 설명하고자 하였다.

드라마에서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현실 정세에 어두운 것처럼 표현되었지만 연준처럼 대명의리를 견지하는 것이 오히려 조선 후기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배적 정서였다. 중세는 화이론에 입각한 세계관을 따르고 있었다. 대명의리는 명나라라는 나라에 대한 의리라고 하기보다는, 명으로 상징되는 보편적인 문명에 대한 존숭이라는 의의를 지녔다. 연준이 감옥에 갇힐지언정 끝내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지 않은 것은 폭력으로 문명을 찬탈한 청나라에 비록 물리적으로는 굴복했을지언정 문명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띤다.

이처럼 답답하고 고지식한 인물로 그려진 연준이지만 그는 국난을 당하자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고, 백성과 나라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연준의 면모에서 당대 성리학적 세계관을 준수하는 지식인의 가능성과 시대적 의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핵심어** <연인>, 조선후기, 지식인, 병자호란, 대명의리

- 차례**
1. 들어가며
  2.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화이론적 세계관
  3. 조선후기 지배적 가치관으로서 대명의리(對明義理)
  4. 공행군자(躬行君子) 연준의 가능성
  5. 나가며

## 1. 들어가며

이 논문은 드라마 <연인>에 나타난 17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몇몇 면모들을 주목하고 이에 관해 설명을 보충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sup>1</sup> <연인>은 2023년 하반기 엠비씨에서 방영된 21부작 드라마이다. 방영 당시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으며, 방영 이후 2023년도 2024년도에 각종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하였다.

<sup>1</sup> 이 논문은 국민대학교 만주연구소 창립기념학술대회 “오랑캐의 탄생: 드라마 <연인>으로 보는 조선과 만주”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작품이 이처럼 장안의 화제가 된 것은 우선 병자호란 전후의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여진족 인물들이 만주어를 사용하는 등 세부적인 상황을 세세하게 작품에 반영하여 작품 안에 정교한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극한의 상황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사랑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하였기 때문이다.

드라마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허구의 서사를 보여주었지만, 작품에서 구현하고 있는 세계관은 당대의 현실을 면밀하게 반영하여 몰입도를 제고하였다. 드라마 곳곳에서 조선시대 한문 서사를 반영한 듯한 실감 나는 장면이 재현되었는데, 몇몇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길채 일행을 안전하게 피난시키려고 장현이 그들을 강화도에 가라고 했는데, 온 일행이 그곳에 간 것이 오히려 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 대목은 『강도몽유록』을 연상시킨다.<sup>2</sup> 이후 청나라 병사의 예기(銳氣)를 피해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은 『천예록』의 기사를 떠올리게 한다.<sup>3</sup> 은애와 길채의 서사 가운데에는 조선의 환향녀 문제, 조선인 포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기도 하였다.<sup>4</sup> 이처럼 심도 있는 세계관을 구축하여 작품의 감동을 배가하며 많은 시청자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었던 드라마이기에 작품에서 보여준 면모들이 일반인의 병자호란 전후 시대 인식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드라마는 남녀 주인공 결연담의 극적인 전개를 위해 연준을 우유부단하거나 실정에 어두운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하였다. 결연 서사의 진행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연준이 ‘답답하게’ 드라마 중에서 견지한 입장은 조선후기 사대부 지식인의 지배적인 면모와 부합되는 면이 많고 이러한 입장은 17세기 당대의 맥락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일견 현대인의 시각에서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당대 조선 지식인 사회에서 지배적 담론으로 통용되었던 ‘화이론’과 ‘대명의리’에 관해 드라마 〈연인〉과 견주어 검토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릇된 통념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연인〉의 장면 가운데 화이론과 대명의리에 연관된 장면을 인용하고 이것을 당대 사대부 지식인들의 한문 문집과 비교 검토하여 당대적 맥락을 설명하고자 한다. 드라마에서도 중요 인물로 등장하지만, 김상헌(金尙憲)의 『청음집(淸陰集)』, 이경여(李敬輿)의 『백강집(白江集)』<sup>5</sup> 최명길(崔鳴吉)의 『지천집(遲川集)』 등 병자호란 시에 조정에서 중용되었다가 심양에 끌려간 당대 문인의 문집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작품 이해의 배경으로 활용하였다.<sup>6</sup> 논의의 자료로 삼는 드라마의 내용은 황진영의 『대본집』을 인용한다.<sup>7</sup>

## 2.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화이론적 세계관<sup>8</sup>

〈연인〉의 서사 진행에서 병자호란은 남녀 주인공의 이산과 재회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다. 작품의 특징적인 면모는 적군인 여진족이 무자비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

5 이경여에 관해서는 지두환, 「백강 이경여의 가계와 생애: 17세기 전반 정국 변동과 관련하여」, 『한국사상과 문화』 1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참조.

6 최명길과 김상헌은 주화파와 척화파로 알려져 있지만 이들은 병자호란 후 심양에 억류된 중신으로 상호 교류가 많았다. 김상헌의 『청음집』 수록 「설교후집」, 최명길의 『지천집』 수록 「북비창수록(北扉酬唱錄)」 등에 저간의 사정을 알 수 있게 하는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이들의 교류에 관해서는 오항녕·최옥형, 「조선 세 중신(重臣)의 심양(瀋陽) 구류와 교류: 김상헌(金尙憲)·최명길(崔鳴吉)·이경여(李敬輿)의 경험」,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참조. 이 시기 두 문인의 한시에 관하여서는 감지희, 「김상헌과 최명길의 한시에 나타난 병자호란의 기억과 상흔」, 『대동한문학』 77, 대동한문화회, 2023 참조.

7 황진영, 『황진영 대본집: 몹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1』, 김영사, 2023. 이후 『대본집 1』과 같이 지칭한다.

8 조선후기 화이론에 관해 여러 면에서 종합적으로 조연해 주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외 다음과 같은 논저에서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박희병, 『범애와 평등: 홍대용의 사회 사상』, 돌베개, 2013;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5.

2 박희병, 정길수 편역, 『이상한 나라의 꿈』, 돌베개, 2013, 93~95쪽 참조.

3 임방, 정환국 역, 『천예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123~124쪽.

4 환향녀 서사에 관해서는 이명현, 「환향녀 서사의 존재 양상과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참조. 계곡 장유가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을 청한 내용에 관해서는 한명기, 『최명길 평전』, 보리, 2019, 445~446쪽 참조.

지만 용골대나 각화처럼 때때로 주인공에게 호의를 보이는 복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이 서사 전개에 입체적이며 극적인 효과를 더했다. 또한 여진족 등장인물의 만주어 대사 사용은 시대의 현실감을 더해 주었다. 이처럼 드라마는 여진족 등장인물의 입체적 형상화에 성공하여 현재에도 무의식중에 발현되고 있는 화이론적인 시각에 균열을 꺾어냈다. 그런데 당시에는 화이론이 지배적인 세계관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논어』「팔일(八佾)」편에 “이적에 임금에 있는 것이 중국에 (임금이) 없는 것과는 같지 아니다[夷狄之有君不如諸夏之亡也]”라는 구절이 있다. 문맥 그대로 풀이하면 ‘불여(不如)’는 ‘~만 못하다’라는 비교의 뜻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적에 임금이 있어도 중국에 (임금이) 없는 것만 못하다’라는 뜻이 된다. 정조도 『홍재전서』「경사강의」에서 ‘대개 이적이 임금이 있어도 예의가 없으니 임금이 없어도 예의가 있는 중국만 못하다’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주자는 ‘이적에도 군장(君長)이 있으니, 참람(僭濫)되고 어지러운 중국과는 같지 않다’라고 풀이하여 춘추 전국시대 어지러운 시대상을 공자가 안타까워하며 탄식한 문맥으로 보았다. 주자는 공자가 시대를 아파하는 면모를 강조하기 위해 통상적인 문법적 해석과 다른 견해를 제시하였다.

『논어』에서부터 시작된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세계관은 화와 이를 구별하면서 중화를 존중하고 이적을 배척하는 전근대의 세계 질서로 작용하였다. 구별의 기준은 지리적 위치, 종족의 차이, 문화적 차이를 기준으로 나누었는데, 그 가운데 문화적 요소를 기준으로 중화와 이적을 나누는 것이 당대인에게 중요한 기준이었다.<sup>9</sup> 당나라 한 유는 〈원도(原道)〉에서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 제후가 이적의 예법을 쓰면 이적으로 여겼고, 이적이 중국의 예법으로 나아오면 중국으로 대우하였다[孔子之作春秋也 諸侯用夷禮則夷之 進於中國則中國之]”라고 하였다. 즉 중화와 이적

을 가르는 데에는 예악 문물과 같은 유교적 세계관을 구현하는 문명이나 그렇지 못한 야만이나가 화이론의 기준이었다고 하겠다.

드라마 <연인>에서 여진족의 침입은 남녀 주인공 사이의 이산을 일으켜 결연의 서사에 장애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제1부에서 병자호란 발발 과정이 배경으로 제시될 때, 능군리의 유생들은 다음과 같이 이적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하였다.

1부 S#25

연준: 지금 중원에서 명나라와 후금 오랑캐가 싸우고 있는 것을 다들 아시지요? 헌데 오랑캐 왕이 우리 임금께 보낸 글에 자신을 ‘대청 황제’라 칭하더니, 조선을 ‘너희 나라’라 불렀다 합니다.

길채: (순간 김이 팍 새서) 뭐야...

반면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정자에 앉은 경근직과 유교연 등 마을 어른들, 서로 무거운 시선을 교환하고, 순약과 준절, 대오 등 유생들에게선 ‘뻔뻔한 오랑캐 놈들’, ‘참람하구나!’, ‘감히 황제를 칭해?’ 따위의 말들이 사방에서 터진다.

「대본집1」, 83쪽

여진족의 청나라 황제를 칭한 사건에 관해 능군리 유생들이 분개하는 대목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야만인 청나라가 힘으로 중화 문명의 상징적 주권자인 천자를 칭하는 것이 그 원인일 것이다. 천명, 예악 등 유교적 가치를 구현하지 않고, 단순히 힘으로 주변 나라를 굴복시켜 천자를 칭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라 ‘참람’된 것이다. 게다가 조선을 ‘너희 나라’라고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상대방 국가를 호칭한 것이 아니라 청나라가 천자의 입장에서 조선을 제후의 나라라고 호칭한 것이다. 따라서 화이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조선 지식인 입장에서 이 점은 매우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같은 장면에서 이어지는 장현의

9 화이론의 의미와 내용에 관해서는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참조.

다음과 같은 발언에도 유생들은 더욱 분개했던 것이다.

1부 S#25

순약: (벌떡 일어서서 샷대질)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준절: 오랑캐에게 돌팔매질한 어린아이들보다 못하구만!  
 대오: 천명이 중화에 있거늘, 어찌 오랑캐가 이기겠소!!

맞은편, 장현의 시종 구잡, 불안해진 표정으로 눈치 살피고, 장현, 술을 털어 넣고 끔... 일어서다가 술기운에 뼈끗 넘어질 뻔한다. 서로 비웃는 눈빛 교환하는 능근리 유생들. 하지만 장현, 전혀 민망해하는 기색 없이 실실... 능청스레 웃자락 털더니,

장현: 아 천명? 천명이 명나라에 있으니 반드시 명이 오랑캐를 이길 것이다? 험데 그거 아시오? 오랑캐들은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저 큰 나라의 이름은, 명나라 이전엔 몽골이 세운 '원'이었고, 원 이전엔 오랑캐 여진족이 세운 '금'이었지요. 오랑캐들 생각에... 천명은 오랑캐에게 있어요.

순약 등, 저저...! 감히 천명이 오랑캐에게 있다니! 이런 망발을...!! 하며 흥분하는데,

「대본집1」, 84쪽

장현의 발언 중 '천명이 오랑캐에 있다'라는 대목에서 유생들은 망발이라고 하며 특히 분개하였다. 그는 이민족이 천하를 지배한 원, 금의 사례를 들어 천명을 설명하였는데, 한족과 이민족이 번갈아 중원의 주인이 되는 것을 상정하였다.<sup>10</sup> 그런데 이것은 비록 청나라의 입장을 인용하는 어투이기는 하지만 그 발언의 근거에는 물리적으로 중원을 차지하여 천하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천명으로 간주한다는 가정이 놓여 있다.

이러한 발언은 당연히 능근리 유생들의 분개를 이끌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천명의 당대적 맥락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이다. 천명은 본디 하늘의 뜻, 하늘이 주재하는 운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서경』 「반경(盤庚)」 상에 '선왕들이 신중하게 일을 행하여 하늘의 명을 공경하고 삼갔다[先王有服, 恪謹天命]'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동아시아 문명의 황제는 천명의 담지자였다. 세상을 평화롭게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치를 펴서 통치의 정당성이 군주에게 담보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포악한 정치나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하늘의 명을 공경하거나 삼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런데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침입한 청나라는 조선을 압도할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왕도정치를 구현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강성함으로 패도를 이룬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는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청나라의 행태는 인과 의, 예악 문물과 같은 유교적 세계관을 무시하고 힘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것이었다. 조선 지식인은 야만의 상태였던 청나라가 중화의 위치를 강점한 것은 일시적인 강성함으로 이 세상을 평정한 패도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실제로 이러한 패도의 시기가 조금 지나면 다시 원상태를 찾아올 것이라고 여겼다. 김상헌의 시를 일부 인용한다.

〈율곡 선생의 가소음(可笑吟) 시를 공경스레 차운하다〉

〈敬次栗谷先生可笑吟〉

可恨又可恨 나의 마음 한스럽고 한스럽나니  
 恨今天下拙 천하 사람 졸렬함이 한스럽다네  
 訂謨久失宜 계책 오래 마땅함을 잃었던 탓에  
 大命忽中絶 하늘의 명 중간에서 홀연 끊겼네  
 豺狼處都邑 시랑과 이리 따위 성안에 살고  
 冠冕倒靴襪 관면들은 거꾸로다 신발 신었네  
 偷生竄身徒 구차하게 살고자 해 도망쳐 숨고  
 錦繡易短褐 비단옷을 해진 옷과 바뀐 입었네

10 이와 유사한 호한질주론(胡漢迭主論)의 입장을 18세기 문인 이복휴(李福休, 1729~1800)가 견지한 바 있다. 박희병, 앞의 책, 2013, 261~263쪽 참조.

(중략)

可恨又可恨 나의 마음 한스럽고 한스럽나니  
 夷言喜轉聒 되놈들 말 시끄럽게 귀에 들리네  
 趨騰誇馬足 날뛰면서 말발굽을 과시하면서  
 辛苦笑箠箠 온갖 고생 겪는 것을 보고 비웃네  
 深思翻覆理 뒤바뀌는 이치 깊이 생각해 보매  
 得在創前失 얻음 본디 잃는 데서 시작이 되네  
 海內多賢藩 천하에는 착한 번국 많이 있거니  
 周社應再栗 주사에는 밤나무가 다시 자라리

(중략)

胡無百年運 되놈에겐 백년 운도 없는 법이니  
 理豈後世屈 이치 어찌 후세라고 잘못되리오

(하략)<sup>11</sup>

『청음집』 권11-13에 「설교집」이라는 편이 있다.<sup>12</sup> 이 시집은 김상헌이 심양 감옥에 갇혔을 때 지은 작품 모음집이다. 『청음집』의 시는 오언절구, 칠언절구와 같이 시체별로 분류되어 수록되어 있는데, 「설교집」만은 별편으로 편집되어 있다. 조한영과의 수창 한시 모음집인 「설교수창집」이 별도로 유통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에 이미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김상헌이 이이의 <가소음>을 계승하여 <가한음>을 짓는다고 한 점에서 학통을 의식한 창작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시에서 보면 대명, 즉 천명이 끊겼다고 하여 청나라에게 천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랑, 이리 같은 짐승이 성안에 산다고 하며 청나라를 문명이 아닌 야만으로 보았다. 또한 『주역』에 나타난 이치의 변화, 소장의

원리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상태를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며 천명이 회복될 것을 상정하였다. 그래서 청나라의 폭력에 의한 지배가 성리학의 이치상 오래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표현하였다. 또한 시에서 주나라의 사(周社)에 밤나무가 다시 자랄 것임을 언급하였는데 이는 문맥상 명나라의 종묘사직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는 뜻이지만, 동아시아 문명의 상징인 “주”라는 나라 이름을 시어로 사용하여 단순히 명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야만의 종식과 문명의 회복까지도 중의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화이론은 전근대의 세계관으로 그 시대별로 의미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여 세계를 인식한다는 큰 틀은 유지되었다. 17세기는 전란 직후라서 강경한 화이론의 입장이 보편적 지지를 받았는데, 연준과 능군리 유생들은 그러한 입장을 표상한다.

### 3. 조선 후기 지배적 가치관으로서 대명의리(對明義理)

<연인>에는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킨다는 표현이 종종 등장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의리는 ‘사람으로써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는 뜻, 그리고 용례는 주로 인간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로 쓰인다. 그런데 중세 한문학의 문맥에서는 이러한 용례보다는 글자 본연의 뜻인 ‘옳은 이치’에 집중하여 쓰이는 경우가 많다. 진시황의 지부각석에 “밖으로는 제후들을 교화하고, 널리 예약과 은덕을 베풀고 옳은 이치를 밝히셨다[外教諸侯, 光施文惠, 明以義理]”라는 구절이 있다. 나아가 유가 경전의 의미를 연구할 때 유가 경전의 옳은 이치인 의리를 연구한다는 문맥으로 쓰인다. 그래서 주로 성리학을 의리(지)학이라고 지칭한다. 의리의 이러한 두 번째 의미가 당대의 문맥에 조금 더 가깝다는 것을 인지한 채 드라마에서 쓰이는 의리의 용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1 金尙憲, 「敬次栗谷先生可笑吟:可笑 今改可恨 亦因時起義也」, 『溟陰集』 권 13.  
 12 김상헌의 시문학에 관해서는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황만기, 「청음 김상헌 시문학에 나타난 의리정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참조. 「설교집」 수록 한시에 관해서는 황인건, 「병란 직후 지식인의 시적 대응: 청음 김상헌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한국시가연구』 6, 한국시가학회, 2000; 김기림, 「청음 김상헌의 시에 나타난 심양 체험과 그 인식: 『설교집』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7, 이화어문학회, 2015 참조.

1부 S#21

인조: 저들이 조선은 명과의 의리를 지키는 나라로, 절대 후금 왕을 황제로 섬기지 않음을 모르지 않을 터... 어찌 경솔히 우리 사신에게 무릎 꿇기를 강요한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대본집1』, 76쪽

〈연인〉에서는 조선의 국왕과 신하들이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느라 불리한 전술적, 정무적 판단과 행동을 내리는 장면이 종종 등장한다. 그 가운데 장현만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실행하여 주인공으로서 제 몫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대명의리는 주화파, 척화파 가릴 것 없이 당대의 지배적 가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전쟁 직후인 17세기의 경직된 분위기에서만 아니라 18세기 이후 조선 후기 내내 대명의리가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지배적인 가치로 굳건한 지위를 점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박지원의 『열하일기』에서조차 권두에서부터 대명의리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후삼경자(後三庚子)’라는 말을 이 글 첫머리에 썼을까. 행정(行程)과 음(陰)·칭(晴)을 적으면서 해를 표준 삼고 따라서 달수와 날짜를 밝힌 것이다. 무엇 때문에 ‘후’란 말을 썼을까. 숭정(崇禎) 기원(紀元)의 뒤를 말함이다. 무엇 때문에 ‘삼경자’라 하였을까. 숭정 기원 뒤 세 돌을 맞이한 경자년을 말함이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숭정’을 바로 쓰지 않았을까. 장차 강을 건너려니 이를 잠깐 피한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를 피했을까. 강을 건너면 곧 청인(淸人)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명이 망한 지 벌써 1백 30여 년이 경과되었거늘 어찌서 지금까지 숭정의 연호를 쓰고 있을까. 청이 들어와 중국을 차지한 뒤에 선왕의 제도가 변해서 오랑캐가 되었으며 우리 동녘 수천 리는 강을 경계로 나라를 이룩하여 홀로 선왕의 제도를 지켰으니, 이는 명의 황실이 아직도 압록강

동쪽에 존재함을 말함이다. 우리의 힘이 비록 저 오랑캐를 쳐 몰아내고 중원(中原)을 숙청하여, 선왕의 옛 것을 광복시키지는 못할지라도 사람마다 모두 숭정의 연호(年號)라도 높여 중국을 보존하였던 것이다.<sup>13</sup>

『열하일기』에서 처음 편차인 「도강록」의 서문이다. 이 서문의 주요 내용은 일기에 날자를 표시함에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갑자로만 표시하겠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연호를 써서 건륭 ○○년 ○월 ○○처럼 연호와 월, 갑자를 동시에 써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박지원은 대명의리 때문에 청나라 연호를 쓸 수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청나라 국경 안에서 숭정이라는 연호를 쓸 수도 없었다. 그 절충적 결과가 경자라고 갑자만으로 날자를 표기하는 것이니, 이러한 저자의 생각을 독자가 알아서 읽어달라는 것이다.<sup>14</sup> 비록 박지원이 청나라의 실상을 모르고 공리공담으로 북벌을 주장하는 조선 사대부의 실상을 비판하고 북학을 추구했지만, 그가 추구하는 북학은 어디까지나 대명의리에 기초하여 청나라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sup>15</sup>

다시 병자호란 당대의 문인 이야기로 돌아가 백강 이경여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찍이 김상헌과 함께 심양의 옥에 끌려가 갇혔던 이경여가 효종에게 상소를 올리자 “지극한 아픔이 마음에 있으나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멀다(至痛在心 日暮途遠)”라는 비답을 받았는데, 훗날 송시열이 이를 큰 글씨로 써서 그의 손자 이이명에게 주었고, 이이명은 이 글씨를 백마강가 그의 처소 곁 절벽에 새겨 두었다. 그리고 이곳은 이후 대명의리의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현재에도 큰 바위에 그 글씨가 남아 있다.

13 박지원, 이기원 역, 『열하일기』, 민족문화추진회, 1968. 한국고전번역원 db참조.

14 박지원보다 앞서 북경에 다녀온 홍대용이 청나라 문인과 교류했다가 김종후로부터 비난의 편지를 받은 전례가 있으므로 박지원 역시 당대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15 조선후기 화이론의 흐름에 관해서는 박희병, 앞의 책, 2013, 256~298쪽 참조.

그런데 척화파만이 대명의리를 고수한 것이 아니라 주화파인 최명길 역시도 대명의리를 존중하였다.<sup>16</sup> 최명길은 명을 공격하려는 청나라의 원병 요구를 거부하고 무산시키려 갖은 방법을 썼다. 그는 명나라에 몰래 승려 독보를 보내 부득이하게 청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리고, 다음과 같이 사죄하였다.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 명나라 장수 홍승주(洪承疇)가 청에 귀순했을 때, 그 사실이 발각되어 심양 감옥에 갇혔던 것이다.

(상략) 신처럼 죽을 죄를 짓고 어찌 하늘과 땅 사이에 서겠습니까? 오직 만절필동(萬折必東)의 남은 정성과 북쪽을 향해 손을 모으는 간절한 정성으로, 사신을 시켜 바다를 건너게 하여 만 번 죽을죄를 우리러 아뢰고 부월(斧鉞)의 처벌을 기다리자니 황공하여 몸 둘 곳이 없고 눈물은 마치 샘처럼 흘러내립니다.<sup>17</sup>

인용문에서 최명길이 쓴 ‘만절필동’은 본래 『순자』에서 유래한 말이지만, 조선후기에는 대명의리를 상징하는 성어가 되었다. 선조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파병하여 조선을 구원함에, 변함없는 의리를 다짐하면서 <피무변명주(被誣辨明奏)>에 위 구절을 사용했기 때문이다.<sup>18</sup> 그 뜻은 중국의 모든 강물이 그 흐름이 만 번이나 이리저리 꺾여 흐르더라도 중국에는 동쪽의 황해로 흘러가듯이 천자국 명나라에 대한 제후국 조선의 존모의 뜻이 간절함을 표현한 말이다.

최명길이 위 문제로 심양에 갇혔을 때, 함께 갇힌 최명

길, 이경여와 주고 받은 한시를 모은 「북비수창록(北扉酬唱錄)」이라는 편이 『지천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다음 시를 보면 자신의 주화론이 비방을 받았지만 본시 나라를 위한 마음은 하나였음을 밝히는 심정을 김상헌에게 보내는 다음 시가 수록되어 있다.

<봄 밤에 회포를 적어 김상헌께 드리다>

<春夜書懷 奉呈石室>

|       |                                  |
|-------|----------------------------------|
| 天下兵猶滿 | 천하에 전란이 아직도 만연하여                 |
| 春來客未還 | 봄이 왔는데도 나그네 돌아가지 못하네.            |
| 此心元一致 | 이 마음 본디 일치하건만                    |
| 世議苦多般 | 세인의 의론이 괴롭게도 분분하구나.              |
| 節序驚寒食 | 절서는 벌써 한식인데                      |
| 歸魂逃舊山 | 넋은 고향 산천을 맴도네.                   |
| 公詩若雲月 | 공의 시는 구름 속 달과 같으니                |
| 仰望未能攀 | 우리를지언정 따라잡을 수 없구나. <sup>19</sup> |

시의 내용 가운데 봄이 왔는데도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였고, 절서가 한식인데 놀란다는 표현이 나오므로 1743년 봄, 한식 경의 작품으로 추정된다. “이 마음은 본디 일치하건만 / 세인의 의론이 괴롭게도 분분하구나”라고 한 함련에서 이 마음을 일반적으로 나라를 위한 충심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화론을 주장한 본인과 척화론을 주장한 김상헌의 마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언급한다고 볼 수 있다. 미련에서 김상헌에 대한 존경의 뜻을 비추며 구름 속의 달과 같아 더위잡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함축적인 한시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겠으나 김상헌의 척화론과 자신의 주화론의 입장 차이를 비유한 것이다. 정치 노선에서 차이는 있어도, 대명의리에 관한 한 양자 간에 같은 마음임을 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9 최명길, <春夜書懷 奉呈石室>, 『遲川集』 권3.

16 최명길의 대명의리에 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 허태구, 「최명길의 주화론과 대명의리(對明義理)」, 『한국사연구』 162, 2013; 허태구, 「병자호란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호란기(胡亂期) 척화론(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규장각』 47,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허태구, 「동국(東國)과 중화(中華) 사이에서 고뇌한 반정공신의 초상: 한명기의 『최명길 평전』(보리, 2019)에 대한비평적 독해」, 『역사와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20.

17 한명기, 앞의 책, 462~463쪽 재인용.

18 선조(宣祖)가 중국에 보낸 <피무변명주(被誣辨明奏)>에 “일편단심 북신(北辰)을 향하는 정성은 만번 굽이쳐도 반드시 동으로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惟其一心拱北之誠 有似萬折必東之水]”라는 구절이 있다.

대명의리의 준수는 일시적으로 연행의 행태에도 변화를 일으켰는데, 때로는 사신 행차 떠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연행록에 나타난 사대부 지식인의 청나라에 대한 태도는 대체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제8부 S#46 한양 연준집 마당 낮

(중략)

대오: 소식 들었습니까? 남, 남수찬이...

은애: ...?!!

영채: 옥에 간헛대요!!

길채: (벌떡 일어서면)

대오: 전하께서 남수찬을 서장관에 임명하셨는데, 남수찬이 청나라에 문안 인사 가는 일은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전하께서 크게 노하시어 대불경죄로...

『대본집2』, 97쪽

명나라에 사신 가는 길에 지은 작품 모음집을 일반적으로 『조천록(朝天錄)』이라고 부르고, 청나라로 사신 가는 길에 지은 작품 모음집을 일반적으로 『연행록(燕行錄)』이라고 지칭했다.<sup>20</sup> 똑같이 사행의 결과물이지만 천자국에 조회 다녀온 기록과 연경에 다녀온 기록이라는 제목에서 문명의 종주로 인정하는가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다. 드라마의 연준처럼 사신 행차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청나라를 오랑캐(胡)라고 지칭하거나 저것들(彼)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sup>21</sup>

이처럼 대명의리는 호란 시기에 주화와 척화와 공통적인 의리의 입장이었으며, 호란 직후에만 유지된 일시적인

사조가 아니라 위에서 든 박지원의 사례에서처럼 조선후기를 관통하는 지배적인 이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을 비롯한 능근리 유생들이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는 입장을 피력했던 것이 당시로서는 당연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현실에 밝은 장현이 그들을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심하게 보았던 것은 드라마에서의 인물 형상을 위해 필요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다음과 같이 유생들이 모여 상소문을 작성하는 장면이 당시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할 수 있다.

제2부 S#46 길채집 사랑채+마당/ 같은 시간

같은 시간, 문기둥 뒤에 숨어 사랑채에 든 연준을 보며 미소 짓는 길채. 보면, 교연과 근직 아래로, 연준과 순약, 대오, 준절, 태성 등등이 앉아 있고 그 사이에 놓인 상소문. 연준 등이 상소문에 올릴 글을 상의하고 있다.

(중략)

연준: (중략) 오랑캐가 스스로 칭제하는 이때에, 예의의 나라인 우리나라가 이를 두고 본다면 우리 역시 짐승과 다를 바 없어, 끝내는 인심을 수습할 수 없을 것입니다.(하략)

상소문의 내용 가운데 “예의의 나라”, “짐승과 다를 바 없어”, “인심을 수습” 등의 구절에 주목해야 한다. 당시 사람들에게 대명의리는 문명과 야만의 기로에서 문명을 수호하는 문제이고, 예교의 질서를 확립하는 문제였다. 그것은 현실 정치의 유불리의 문제와 별개 차원이었다. 그래서 전란 이후에는 야만의 청나라가 문명의 명나라를 멸하여 중화의 문명을 조선이 보존하고 있다는 이른바 ‘조선 중화주의’가 18세기에 국왕의 여러 현양 사업에 의해 확산된 바 있다. 1704년 숙종이 대보단을 설치하여 명나라 신종의 제사를 모셨고,<sup>22</sup> 1749년 영조는 명 태조와 명의

20 명나라와 청나라에 보냈던 사신단의 성격 변화에 따라 당시에도 이를 지칭하는 용어가 차이가 났다. 명나라에 보내는 사신은 ‘부경사(赴京使)’라 하였고, 청나라에 보내는 사신은 숙종 이후에 ‘부연사(赴燕使)’라 하였다. 박희병·박희수, 「조선시대 중국 파견 사신의 총칭 문제」, 『한국문화』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참조.

21 김묘정, 「병인연행일승(丙寅燕行日乘)에 나타난 오도일(鳴道一)의 대청 의식 표출 양상 검토」, 『한문학논집』 43, 근역한문학회, 2016; 김묘정, 「俞得一의 『燕行日記草』에 나타난 대청인식과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41, 동양한문학회, 2015.

22 숙종의 대명의리에 관해서는 김덕수, 「숙종의 대명의리와 문학적 형상화 시점」, 『민족문화』 60, 한국고전번역원, 2022; 김성희, 「조선 숙종의 군신 의리 정립과 존주대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참조.

종의 제사도 함께 모셨다. 이후 대보단에서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바치며 중화 문명의 정통을 상징적으로 계승하는 행사를 지속했다. 민간에서도 만동묘(萬東廟)를 세워 대명 의리를 현양했다.

본 장을 마치기에 앞서 드라마 <연인>에서 창작한 허구적 내용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의리”의 의미로 독해할 때, 다음 장면은 의미를 주목할 만하다. 당대의 지배적 세계관인 대명의리와 별개의 의리를 장현이 소현세자에게 제시하고 있다. 소현세자의 입장에서 조선과 조선 백성을 위해 무엇이 옳은 이치인지, 그리고 자신과 소현 사이에서 무엇이 옳은 이치인지를 명확하고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제13부 S#35 심관 정원 낮

(중략)

장현: 조선 선비들이 저하께서 명나라와의 의리를 굳건히 지키길 바란다 하셨습니까? 허나 저하, 저하께서, 이곳에서 저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 또한 의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저하께서 여기 계시니 조선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저하께서 오늘 조선 백성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고심하는 것이 바로 백성들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일입니다.

소현: (장현의 말이 소현에게 파장을 일으킨다)

장현: 소인, 부족하나마 군량을 나를 수레와 일꾼을 보태도록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이것이... 저하를 뒤흔드는 소인의 의리입니다. 저는 저하께, 저하께서 조선 백성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지요.

『대본집2』, 414쪽

대명의리가 문명인 중화를 회복하고 야만인 청나라에 굴복하지 않는 문제였다면, 위 인용문에서 말한 백성에 대한 의리는 비록 드라마적 상상력이 반영되었지만, 무엇이

당시에 옳은 이치였을까 생각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렇지만 당시 지식인들에게 대명의리 문제는 현실의 유희를 초월하여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당연하게 귀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장현이나 소현과 같은 차원의 의리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 4. 공행군자(躬行君子) 연준의 가능성

드라마 <연인>은 역사의 재현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가진 창작 내용이라는 점을 드라마 각 편에서 표방하고 있다. 작가의 상상력이 묘미를 발휘한 대목이 매우 많고 감동적인 대목도 많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결연을 방해하고, 현대인의 입장으로 볼 때 시대의 흐름에 어두웠으며, 악역 인물의 권모술수에 이용당하는 연준에 주목하였다. 그는 당시 지배적인 이념을 충실하게 준수했으며, 그것을 지키다가 끝내 부인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였고 예와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일생을 회의하기도 하였다.<sup>23</sup> 작품 속에서 여러 한계를 보였지만 그를 통해서 성리학적 세계관을 지닌 지식인의 가능성에 관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제5부 S#13 동장소 밤

장현: 이제라도 임금님을 구하는 일을 그만두고 애 낭자를 지키러 가는 게 어떨겠소?

연준: 그리는 못 합니다. 나도 우리가 오랑캐를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난 임금님을 뵈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지요. 순약이처럼. 하지만... 난 배운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할 줄 모릅니다. 평생 나라에 화급한 일이 있으면 나가 싸우는 것이 선비의 도리라 배웠소.

장현: ...

23 『대본집』 3, 421쪽.

연준: 여인이 사내를 따르고,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신하가 임금에 충성하는 질서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섬김을 받았으니, 사내와 부모는 여인과 자식을 보호하고, 임금과 사대부는 백성을 지키는 의무가 있어요. 나는... 임금을 구하다 죽을 것입니다. 내가 임금을 위해 죽으면, 임금께선... 백성을 지켜주실 것이요. 내가 믿는 것은 그뿐입니다.

『대본집1』, 298쪽

드라마 〈연인〉 서사 전개 내내 연준은 답답하고 고지식한 인물로 등장한다. 그러나 그는 당대 지배적인 세계관에 진심으로 충실한 인물일 뿐이다. 관료도 아니고 국가로부터 큰 상을 받은 것도 아닌 한 유생이 비록 세상 물정에는 어두울지라도 충심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평생 배운 바를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 즉 연준이 ‘난 배운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할 줄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이른바 궁행군자의 모습이 보인다. 『논어』 「술이(述而)」 편에 “몸소 실행하는 군자를 나는 아직 언지 못하였다(躬行君子則吳未之有得)”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민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은 근대 이후에 확립되는 것이다. 군주제에서 주권은 군주에게 있는 것이다. 소현세자가 장현에게 인조 피난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벼루를 이마에 던진 대목도 비슷한 맥락을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주권자도 아니고 관리도 아니며 일개 유생이었던 연준이 나라를 위해 자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배웠던 성리학적 세계관이 제대로 기능하여 세상이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던 데 있다.

서사 전개상 또는 인물 성격의 형상화 때문에 연준은 일관되게 성리학적 세계관에 충실한 인물로 그려졌다. 그로 인한 시대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연준으로 표상되는 당대의 궁행군자의 진정성에서 현실의 불합리한 폭력과 부조리에도 문명의 보편적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성

리학적 세계관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연인〉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사초를 남겨 그간의 모든 정황을 알 수 있게 한 인물이 연준이었음도 조선후기 지식인이 문명과 의리를 수호하는 면모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 5. 나가며

이상의 논의에서 드라마 〈연인〉의 등장인물 연준을 중심으로 그 인물 형상화가 17세기 조선 지식인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표상함을 검토하였다. 작품의 주동 인물이 아니라 반동 인물이며, 서사의 분량 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연준을 논의의 중심에 둔 것은 이 논문이 조선후기 지식인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연인〉을 이해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이다.

작품 감상에 있어서 연준은 남녀 주인공의 결연을 방해하고, 능동적인 주인공의 면모에 비하면 답답하고 지리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비록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보였겠지만 바로 그것이 당대 지식인의 통상적인 면모를 전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준은 중화와 이적으로 세계를 구분하는 화이론적 세계관을 보여주었는데, 오랑캐의 중화 침략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힘의 강약, 형세의 이로움과 불리함을 초월하여 이에 맞서 싸우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의리의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국가로서 명나라에 관한 의리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문명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폭력과 야만에 항거하는 의리로서 대명의리를 준수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답답하고 고지식한 인물로 그려진 연준에게서 당대 성리학적 세계관을 준수하는 지식인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보았다.

그럼에도 이 논문은 〈연인〉의 핵심적인 서사를 검토한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서사에 천착했다는 한계가 분명하

며, 또한 드라마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했기 때문에 한문학이나 역사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 소략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17세기 화이론과 대명의리에 관해서는 선행연구의 논의가 자세하므로 이 논문의 논의는 이 부분에 관해 선행연구에 기대며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는 추후 별고를 기약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황진영, 『황진영 대본집: 몸시 그리워하고 사랑한 연인』 1·2·3, 김영사, 2023.  
 김상헌, 『청음집(淸陰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이경여, 『백강집(白江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최명길, 『지천집(遲川集)』, 한국문집총간 영인본.

### 2. 단행본 및 논문

- 강지희, 「김상헌과 최명길의 한시에 나타난 병자호란의 기억과 상흔」, 『대동한문학』 77, 대동한문학회, 2023.  
 김기림, 「청음 김상헌의 시에 나타난 심양 체함과 그 인식: 『설교집』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37, 이화어문학회, 2015.  
 김덕수, 「숙종의 대명의리와 문학적 형상화 시점」, 『민족문화』 60, 한국고전번역원, 2022.  
 김묘정, 「병인연행일승(丙寅燕行日乘)에 나타난 오도일(鳴道一)의 대청의식 표출 양상 검토」, 『한문학논집』 43, 근역한문학회, 2016.  
 \_\_\_\_\_, 「유득일(兪得一)의 『연행일기초(燕行日記草)』에 나타난 대청인식과 의미」, 『동양한문학연구』 41, 동양한문학회, 2015.  
 김성희, 「조선 숙종의 군신외리 정립과 존주대의」,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김용흠, 「지천(遲川) 최명길(崔鳴吉)의 정치 활동과 유자(儒者)의 책임의식」, 『백산학보』 111, 백산학회, 2018.  
 박희병, 『범애와 평등: 홍대용의 사회사상』, 돌베개, 2013.  
 박희병·박희수, 「조선시대 중국 파견 사신의 총칭 문제」, 『한국문화』 8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박희병, 정길수 편역, 『이상한나라의 꿈』, 돌베개, 2013.  
 배우성, 『조선과 중화』, 돌베개, 2015.  
 백승호, 『정조의 문치』, 휴머니스트, 2020.  
 성범중, 「청음 김상헌의 삶과 시」, 『한국한시작가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5.  
 심경호, 「지천 최명길의 문학과 사상에 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42, 한국한문학회, 2008.  
 오수창, 「최명길과 김상헌」, 『역사비평』 42, 역사비평사, 1998.  
 오항녕·최옥형, 「조선 세 중신(重臣)의 심양(瀋陽) 구류와 교유: 김상헌(金尙憲)·최명길(崔鳴吉)·이경여(李敬輿)의 경험」,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_\_\_\_\_, 「청음 김상헌의 현실 인식과 척화론」, 『한국사상사학』 67, 한국사상사학회, 2021.  
 이명현, 「환향녀 서사의 존재 양상과 의미」, 『동아시아고대학』 60, 동아시아고대학회, 2020.  
 임방, 『천예록』, 정환국 역,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지두환, 「백강 이경여의 가계와 생애: 17세기 전반 정국변동과 관련하여」, 『한국사상과 문화』 13, 한국사상문화학회, 2001.  
 최옥형, 「조선 세 중신(重臣)의 심양(瀋陽) 구류와 교유: 김상헌(金尙憲)·최명길(崔鳴吉)·이경여(李敬輿)의 경험」, 『대동문화연구』 10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9.  
 허태구, 「최명길의 주화론과 대명의리(對明義理)」, 『한국사연구』 162, 2013.  
 \_\_\_\_\_, 「병자호란 이해의 새로운 시각과 전망: 호란기(胡亂期) 척화론(斥和論)의 성격과 그에 대한 맥락적 이해」, 『규장각』 4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5.  
 \_\_\_\_\_, 「동국(東國)과 중화(中華) 사이에서 고뇌한 반정공신의 초상: 한명기의 『최명길 평전』(보리, 2019)에 대한 비평적 독해」, 『역사와 현실』, 한국역사연구회, 2020.

허태구, 「정조대 대청 외교와 대명여리의 공존, 그 맥락과 의미」, 『지역과 역사』 47, 부경역사연구소, 2020.

한명기, 『최명길 평전』, 보리, 2019.

황만기, 「청음 김상헌 시문학에 나타난 의리정신」,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황인건, 「병란 직후 지식인의 시적 대응: 청음 김상헌의 <설교집>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6, 한국사학회, 2000.

## Abstract

### The Literati Society of the 17th century's Joseon in <My Dearest>

Baek, Seung-Ho | Kookmin University

This thesis examined that the figure represented the typical appearance of intellectual socie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Yeonjun, a character in the drama <My Dearest>. It depicted Qing figures such as Yonggoldae and Gakhwa not only as villains, but as figures with complex personaliti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Joseon figures was also multifaceted. However, in reality of the time, the world view based on the Hwayiron was dominant. It is rather consistent with the reality of the time that Yeonjun and Confucian scholars discuss the order of heaven and insist on resistance with the Qing Dynasty. In the drama, it was set as if keeping the loyalty to the Ming Dynasty was dark in the real situation, but keeping Daemyeong Euri was the spirit of the times that penetrated the late Joseon Dynasty. It had the significance of respect for the universal civilization symbolized by the Ming, not loyalty to the country Ming. Although Yeonjun may be imprisoned, the fact that he did not go to the Qing Dynasty as an envoy means that he will not give up his desire for civilization, the Qing Dynasty exploited violence to usurp civilization.

He is such a frustrating and dignified character, he is willing to throw himself out when he is in a state crisis and shows concern for the people and the country. In this respect, the possibility of intellectuals observing the Neo-Confucian worldview of the time was reviewed positively.

**Keywords** <My Dearest>, Late Joseon, Literati, Byeongja Ho'ran(丙子胡亂), Daemyeong Euri(對明義理)